도갑사 선명상 축제 "반딧불로 마음평안"

6월 6일 '반딧불이 생명살림'
AI시대 치유 해법으로 선명상 제시
반딧불 방생, 생명존중·평화 발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은 6월 6일 영양 도갑사에서 '반딧불이 생명살림 선명상'을 주제로 '2026 선명상축제 영암'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반딧불이의 작은 빛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서울 봉은사에서 시작된 '2026 선명상 축제'가 6월 6일 영암 도갑사에 두 번째 마당을 펼쳤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6일 영양 도갑사(주지 수관 스님)에서 '반딧불이 생명살림 선명상'을 주제로 '2026 선명상축제 영암'을 개최했다. 축제 참가자들은 반딧불이의 작은 빛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에는 도갑사 주지 수관 스님과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 혜오 스님, 도갑사 포교국장 고월 스님, 싱잉볼 전문가 소요를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영암 구림공업고등학교에 유학 중인 베트남 학생 30여 명도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자연과 명상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선명상의 가치를 몸소 느꼈다.

행사는 AI 분석을 통해 개인의 심리 상태에 맞는 명상법을 제안하는 '마음처방전'을 시작으로 수안 스님의 음악 공연 '노래가 있는 선명상', 소요의 '소리치유 선명상', 고월 스님과 소요가 함께한 '향기로 여는 선명상', 혜오 스님의 '생활 속의 실천 선명상' 등이 이어졌다.

이날 축제에서는 특히 영암곤충박물관과 협력해 반딧불이의 생태를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청정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이의 생태적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며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국장 혜오 스님은 "조계종은 전통 수행인 선명상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중화·현대화하고 있다"며 "도갑사의 청정한 자연과 반딧불이의 은은한 빛 속에서 번뇌를 내려놓고 내면의 순수한 빛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AI시대일수록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선명상이 마음의 평화와 치유를 얻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에 나선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반딧불이가 상징하는 청정함의 의미를 강조하며 "청정함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참회가 일어나고 수행이 시작된다"며 "오늘 선명상과 반딧불이의 빛을 통해 각자의 업장을 녹이고 지혜와 자비를 성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갑사 주지 수관 스님은 "반딧불이 방생과 생명살림은 우리 자신과 지구를 함께 살리는 일"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모두의 업장을 녹이고 행복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자 축제의 마지막 순서로 반딧불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생 의식이 진행됐다. 반딧불이의 작은 빛이 어둠 속 숲길로 흩어지자 참가자들은 두 손 모아 생명의 소중함과 세상의 평화를 발원했다.

월우 스님은 방생에 앞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오늘 방생하는 반딧불이처럼 우리 사회가 더 밝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영암 도갑사에 이어 10월까지 전국 주요 사찰을 순회하며 지역의 자연과 문화, 수행 전통을 접목한 선명상축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결혼 커플' 배출 낙산사서 새로운 인연을

복지재단, 7월 11~12일 '나는 절로'
6월 8~22일 오전 10시까지 접수

청년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올여름 동해 바다의 낭만을 간직한 양양 낙산사(주지 일념 스님)에서 열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나는 절로, 낙산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수도권·강원권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과 연관 있는 2030 세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미혼남녀 각 10명씩을 선발한다. 참가 신청은 6월 22일 오전 10시까지 복지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를 참조해 구글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나는 절로'는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만남과 템플스테이를 결합해 자연스러운 관계 맺음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참여자들이 보다 가까운 환경에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행사가 열리는 낙산사는 남해 보리암, 강화도 보문사와 함께 한국의 해수관음성지 3곳으로 꼽힌다. 특히 2024년 8월 진행한 칠월칠석 특집 '나는 절로, 낙산사' 편에서 결혼 커플이 탄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번 '나는 절로, 낙산사'는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성현)과 협업해 진행된다.

이현희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신임 시설장 5명 임명

6월 7일, 서울 전법회관서
퇴임 시설장 5명에 감사패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6월 7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산하시설 신임 시설장 임명장 수여식 및 퇴임식'을 개최했다. 복지재단은 신임 시설장 5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퇴임 시설장 5명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신임 시설장에게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불교사회복지 실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퇴임 시설장에게는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시설장은 기관 운영뿐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불교사회복지 가치를 바탕으로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해 신뢰받는 기관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시설장은 거창 군삶의쉼터 관장 금선 스님, 김건태 우산종합사회복지관장, 고록화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희 영통어린이집 원장, 장인수 수락노인종합복지관장이다. 신임 시설장들은 "불교사회복지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간 불교복지 발전에 힘써온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과 신용삼 수송보현의집 시설장, 정민희 자광원 원장, 김옥희 금륜어린이집 원장, 박미란 영통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현희 기자

동대부중 파라미타 "소아암 환아에 써 주세요"

6월 10일 아름다운동행에
바자회 수익금 206만원 전달



동대부중 파라미타학생회는 6월 10일 교내 큰법당에서 아름다운동행에게 자비나눔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전액 206만400원을 전달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교장 박규태, 이하 동대부중) 파라미타학생회가 교내 바자회에서 모연한 수익금을 소아암 환아를 위해 기부했다.

동대부중 파라미타학생회는 6월 10일 교내 큰법당에서 아름다운동행(상임이사 법오 스님)에게 자비나눔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전액 206만400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전교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열리는 '자비나눔 바자회'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아 얻은 수익금이다. 이번 바자회에서도 학생들이 쓰지 않는 물건들을 파라미타학생회 임원들이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를 진행했다.

전달식 이후 법오 스님은 동대부중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스님은 "동대부중 학생들이 소아암으로 병원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도움을 주게 된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박규태 동대부중 교장은 "평소 아이들은 어떤 것이 소중하고 귀한지 모를 때가 많다"며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여기서 얻어진 수익금이 이웃을 도와 자비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면 한다"고 전했다.

윤정후 동대부중 파라미타학생회장은 "매년 바자회를 통해 모두 한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며 "소아암 친구들이 하루 빨리 쾌차해 바자회도 같이 하며, 함께 놀았으면 좋겠다"고 염원했다.

박지운 기자

수원 봉녕사, '계율과 수계의범' 연수교육

6월 23~25일 경내 도서관 2층
'수계 역사·의의' 등 10강 구성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내 도서관 2층에서 구족계를 수지한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2026년 제14차 봉녕사 계율연수'를 개최한다. 계율과 수계의범을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수계의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계의식 과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총 10강으로 구성됐다. 23일 △서봉 스님의 '수계의 역사', '수계의 의의와 목적' △적연 스님의 '삼귀의오계 수계의범', 24일 △적연 스님의 '팔관재계 수계의범', '십선계 수계의범' △정현 스님의 '계체의 의의', '계체의 형성 조건', 25일 △선정 스님의 '삼귀의오계 수계작법', '팔관재계 수계작법', '십선계 수계작법'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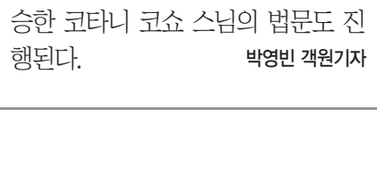
신청은 6월 23일까지 봉녕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bong4127@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봉녕사 묘엄불교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전액 무료다. 010-5211-8873

이현희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일본 교토 고찰서 불교 페스티벌 열린다

7월 2일 콘카이코묘지서 개최
낮엔 토크쇼–밤엔 스님들 공연


일본 불교 밴드 'THE南無S'.
사진 출처=오리콘 뉴스

최근 우리나라에 '힙불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일본 불교계도 MZ세대를 겨냥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어 화제다.

6월 7일 일본 '오리콘 뉴스', '야후 재팬 뉴스' 등 현지 언론들은 오는 7월 열리는 불교 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에 대해 보도했다.

오는 7월 2일 교토의 고찰인 콘카이코묘지(金戒光明寺)에서 개최되는 불교 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 'THE 극락 NIGHT in 대본산 콘카이코묘지'는 불상 애호가로 유명한 연예인 미호토케의 발의로 시작됐다. 7월 1일부터 3일간 교토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컨퍼런스 'IVS 교토 2026'의 부대 행사 중 하나로, 낮과 밤의 2부로 구성됐다.

행사가 열리는 콘카이코묘지는 1175년에 창건된 고찰로 일본 정토종의 종조 호넨(法然) 스님이 최초로 염불도량을 세운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토종의 7대 본산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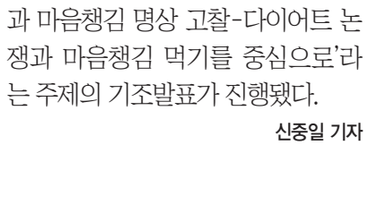
1부 낮에는 경제와 불교를 함께 살피는 토크쇼 '최애와 기도'가 진행된다. 발의자인 미호토케가 사회를 맡고 카와베 켄타로 일본 LINE 야후 대표이사와 일본 정토종 이케구치 호류 스님·카와무라 에이쇼 스님이 대담에 나서 '종교'와 '아이돌'에 어떤 교차점이 있는지 이야기할 예정이다.

2부 밤에는 'THE 극락 NIGHT'라는 라이브 공연을 통해 본격적인 축제 분위기를 끌어 올린다. 스님이 이끄는 만담 콤비 '도돈'의 공연과 스님이 보컬을 맡고 있는 불교 밴드 'THE 南無S'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 지난 2024년 법문 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코타니 코쇼 스님의 법문도 진행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철우 스님, 30년 반야지혜 포교 회향

6월 5일 정년퇴임 학술세미나
월우 스님 "퇴임해도 도움 부탁"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이 정년퇴임하는 철우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불교대학원장 철우 스님이 30년간 학승으로서 펼쳐온 반야지혜 포교 활동을 회향했다.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6월 5일 교내 자비관 4층 대강당에서 '철우 스님 정년퇴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에는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해 철우 스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활동에 박수를 보냈다. 스님은 정년퇴임을 기념해 중앙승가대에 교육불사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철우 스님은 정년퇴임 기념세미나에 참석한 사부대중들에게 "해인사 강원에 27기로 공부하며 교육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는 원력을 세워 법주사 강원 등을 다니다가 동국대에서 석·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중앙승가대에서 전임으로 활동해 오다가 오늘을 맞이하게 됐다"며 "그동안 KCI 등재 소논문 15편을 묶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과 〈중국 조계선 사상과 선시 연구〉,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세상에 내어 놓는다"고 말했다.

총장 월우 스님은 축사에서 "중앙승가대에서도 후학을 양성하며 힘쓰시다 무거운 소임을 소화하고 학자로 연구에도 힘쓰셨으니 정년퇴임을 하시더라도 중앙승가대를 잊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오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도 축사를 통해 "학문의 세계는 대해(大海)와 같으니 무쇠소가 바다를 건너가듯 전진으로 고해의 중생을 건너가게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학술세미나 제1세션에서 철우 스님은 '다이어트 식단 논쟁과 마음챙김 명상 고찰-다이어트 논쟁과 마음챙김 먹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기조발표가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교정교화전법단, 대구교도소서 지원법회

6월 9일, 재소자 교화·전법
혜원 스님 "집착 내려놓아야"



조계종 포교부 교정교화전법단(단장 혜원 스님)이 6월 9일 대구교도소에서 지원법회를 봉행하고 재소자 교화와 전법 활동을 이어갔다.

법문에 나선 혜원 스님은 "눈이 색을 보려면 색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고, 귀가 소리를 들으려면 소리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며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스님은 "불교는 아견과 집착이 진정한 내가 아님을 알아차리는 가르침이며, 생각의 근원이 되는 '생각 없음'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했다.

도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 좋고 싫음, 쉽고 어려움, 빠름과 느림 등 수많은 차이를 경험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다양한 인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며 "오늘의 사회 역시 수많은 인연 공덕으로 삶이 유지되기에,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운 기자